

## 제 4 강 문학에도 '방법'이 있는가

(참고 텍스트)

◎ 밀란 쿤데라《소설의 기술》, 파블로 네루다<시>, 김성동《길》, 박경리《토지》

◎ 김소월<초혼>, 이용악<낮은 집>, 장그르니에 Jean Grenier《Les îles》(1933)

### 1 교시 삶 속에서 생겨나는 장르들

이야기는 한차례 퍼져나가 오래 기억되지만, 시와 노래는 쉽게 기억되지 않아 두고두고 반복해서 불러야 하는 숙명이 있다.

#### 1. 장르에 대한 작가들의 견해

##### 1) 밀란 쿤데라

- 《소설의 기술》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의 정신을 소설의 본질이라고 한다. 그는 인간 성격의 새로운 측면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새로운 소설이라고 한다. 즉 “인간 성격의 새로운 측면을 발굴하지 않은 작품은 부도덕한 작품”이라고 말한다. 부도덕한 작품이란 그저 복제된 작품이라는 뜻이다.

- 《소설의 기술》에서 시는 “저 뒤쪽 어디에”라고 설명한다. 어떤 경험은 관성에 의해 새로지 않은 것으로 된다.

##### 2) 파블로 네루다 <시>는 시의 “저 뒤쪽 어디에”라는 부분을 잘 나타낸다.

3) 김성동 《길》에서 “산문이 발걸음이라면 운문은 춤이다.”라는 비유가 나온다. 걸음은 정확성이 핵심이다. 소설 문체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게 흘러야 오래갈 수 있고, 상황과 상황의 발전을 감당할 수 있다. 그에 비추어 우리는 뜻을 전달하려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흥이 표출되어서 춘다. 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된다. 이동의 필요 때문에 춤 동작을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시 문법을 이해하는데 꽤 중요한 단서가 된다.

#### 2. 서정과 서사의 장르

서사적 장르와 서정적 장르 모두 운문과 산문이 있다.

1) 서사적 장르는 소설이 중심이다. 영화에서도 서정적 방식이 있는데, 이란 영화 <가베 Gabbeh>(1996)가 그런 경우다. 이야기 얽음새가 존재하는 것을 서사 양식이라고 하는데, 서사적 장르인데 시인 경우도 있다. 이것이 '서사시'이다.

예를 들어 박경리의 《토지》를 '대서사시'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말 중심이었고, 말

속에는 서사문학이건 서정문학이건 운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운문인데, 이 운문이 문자시대에 이르러 점점 노래와 이야기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대하 서사가 운문으로 펼쳐졌던 시대에는 소설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2) 서정적 장르는 '서정시'다. 서정시는 세 가지 소장르로 나뉜다. 첫째, 김소월의 <초혼> 시처럼 70년대까지 만가형식을 가진다. 둘째, 이용악의 <낮은 집>과 같은 이야기풍인데 80년대 늘어났다. 셋째, 90년대를 넘으면서 김수영 형식과 비슷한 진술형의 시이다.

산문에서도 서정적 장르가 있다. 장그르니에의 《섬》이 그런 예다.

**3. 장르는 시대에 따라 생성, 발전, 소멸한다.** 시대별 차이 때문에 고유 미학의 단절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장르전통이 취약하다.

80년대 이미 장르의 실험은 많았다. 장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의 발표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장르는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묘목처럼 계속 자라는 것이다.

문학은 창조자와 사용자 사이에 함께 산다. 이러한 것들이 양식과 갈래를 만든다.

## 2 교시 문학의 역사적 변화와 조류

문학의 역사적 변화와 조류 : (문예사조 = 창작 방법) 논쟁

1. '문예 사조'는 근대 이후 '창작 방법'이라고 불리며 '사조'는 '방법'으로 이동해 왔다. '방법'은 '세계관'과 대칭되는 면이 있다. 철학 용어 중에 '변증법적 유물론'은 "세계관은 유물론적이고, 사유의 방법은 변증법적이다."라는 말이다. 이것이 세계관과 방법을 지칭하는 말이다.

리얼리스트는 "방법은 방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얼리즘을 포함한다."고 한다.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예로 들자면 황지우 시인의 모더니즘 방식이 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같다고 할 수 있다.

2. 고전주의는 틀이 있다. 연극의 시간, 장소, 행동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상업자본가들이 발생할 무렵 고전주의가 중요한 예술 방법으로 등장했다. 연극 중심이었던 이때는 희극은 예술로 치지 않고, 비극을 예술의 본령으로 생각했다. 또한, 하층민 보다는 근엄한 영웅상을 중시하였다. 고전주의는 그러한 몰개성 때문에 붕괴하였다.

3. 낭만주의는 감정, 주정을 반영하게 되었다. '상상력'이 장점이다. 반면 '감정의 과잉'은 단점이었다. 낭만주의는 미래지향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일부 가지고 있다. 대체로 체험된 사실 중심이 아니고, 증폭된 감정의 위탁에 있다.

4. 리얼리즘은 세부의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세부는 내가 체험한 세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현실 속에는 비현실적인 진실이 많이 있다. 그러한 것은 객관세계의 진실에 파탄을 가져온다. 그러기에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과 '전형'은 리얼리즘의 요건이자 큰 특징이다.
5. 모더니즘은 광범위해서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두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첫째, '세련미'를 중시하고 도회적 내면을 중시했다. 둘째, '신파를 적대시'한다.
6. 근대 작가들에 의해서 고전주의, 낭만주의 방법이 다 시도되기도 했다. 가장 크게 갈등하며 주류를 점한 것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갈등이었다. 예술의 핵심은 실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리얼리티와 모더니티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다.
7. 근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형식이 출현한다. 마르케스의 출현으로 알 수 있는 반리얼리즘적인 요소들, 마술적 리얼리즘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형식이다. 이것은 리얼리즘에서 심화한 의미에서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경계가 희미해졌다. 윤리적 문제만 남게 되었다.
8. 양식은 다시 변화를 겪고 있다. 서사는 형상이 없다. 서사 전달 즉 형상화 시키기 위해 '서술, 묘사, 대사'를 모두 사용한다.